

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 
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 추진(안)

2024. 3. 28(목)

금 융 감 독 원

## I. 추진 배경

- IT기술 발전으로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
    - 한편,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, 명의도용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<sup>\*</sup>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<sup>\*\*</sup>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
      - \* [사례] A씨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냈으며 사기범은 동 사진으로 A씨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여 2.5억원을 편취
      - \*\*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('03.9월~),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('22.12월~) 등
- ➔ **신용대출, 카드로 등 여신거래(대면·비대면)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(Opt-out)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**(가칭 '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')

## II.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 추진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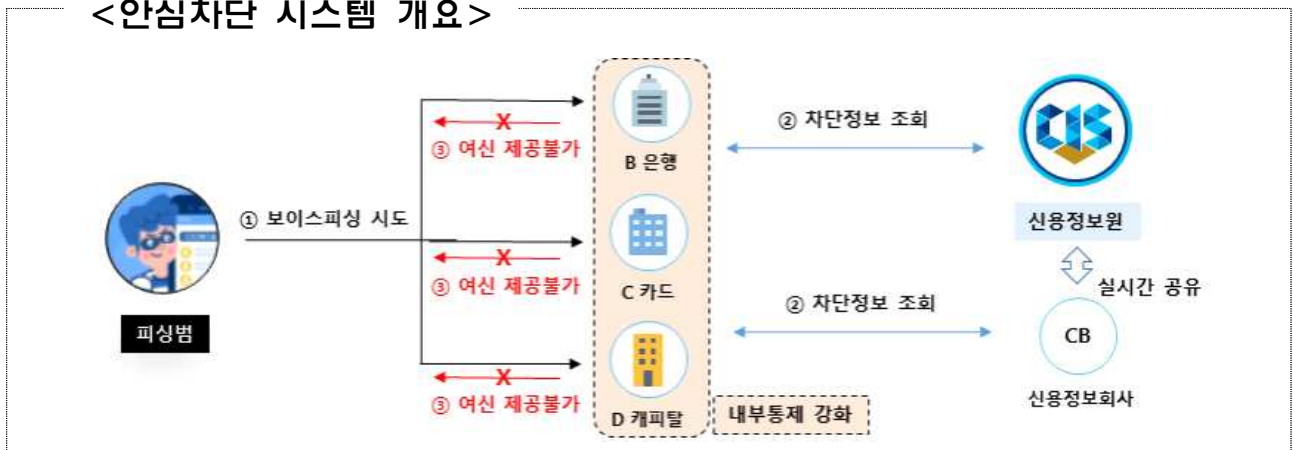
-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 신청시, 금융회사는 신정원에 '여신거래 차단신청'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 신청한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
- 
- ① (신청)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<sup>\*</sup>에 방문하여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
    - \*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, 농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 限
  -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이후 여신거래 차단신청 정보<sup>\*</sup>를 신정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사실을 통지(SMS 등)
    - \* 금융기관 코드, 신청일자, 신청인 구분(본인, 대리인), 대상자 성명, 연락처 등
  - ② (조회) 금융회사는 대출,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신정원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
    - 차단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여신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
- ※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정기적(반기 1회)으로 통지

② **(해제)**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금융회사\*에 방문하더라도 해제 신청 가능

\* 안심차단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, 농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 **限**

- 금융회사는 안심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정원에 등록 및 해제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(SMS 등)

<안심차단 시스템 개요>



### Ⅲ.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

□ **(기대효과)** 안심차단 시스템을 선택한 소비자는 명의도용 및 비대면 본인확인 기술 취약점에 기인한 금융사고의 사전예방 효과 기대

- 농·수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하여 농·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취약계층도 손쉽게 안심차단 신청·이용 가능
-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시 은행 및 제2금융권(저축은행, 증권, 보험, 캐피탈, 대부금융 등)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

□ **(추진계획)** '24.상반기 內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정원, 협회,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

-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(위임대리인) 및 비대면 신청 허용 검토